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개선한다

제도 개선 창작활동 등 3대 정책 13개 과제 도출 안심보험 가입 등 문화예술인 사회 안정망 강화

광주시는 14일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존 제도와 관행을 깨고 문화예술인 창·제작 지원 강화, 문화예술인 권리 증진 등의 3대 정책 13개 과제를 담았다.

개선안은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은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용섭 시장이 직접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문화예술 특별주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정책이다.

시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와 문화재단, 민간전문가로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7회에 걸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성과물을 도출했다.

제도 개선 정책은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 앞당기기 ▲공연예술 사례비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사업 창·제작 결과물 저작권 귀속 대상 명확화 ▲문화예술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례비 편성 확대(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한함) ▲문화재단 소액 지원사업 정산 간소화 등이다.

통합공모사업 공모시기가 너무 늦어 행사를 위한 대관, 스텝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 본예산 확정 시 익년도 사업 공고를 하도록 앞당기고,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공연예술 참여 사례비 편성기준을 마련, 정당한 대가 지급과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보조사업을 통한 창작물의 저작권자를 창작자로 명확히 해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익 목적의 사용은 협의를 통해 시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및 교부조건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한해 대표자 사례비 편성비율을 상향(10→20%)하고 예술인(본인) 사례비를 허용하는 한편, 소액 지원사업은 정산증빙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문

화재단 이사회 의결 필요)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산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창·제작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2년 단위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운영 ▲광주특화 문화예술 제작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확대(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확대) ▲(신규)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강화(광주형 장애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문화 메세나 확대(광주형 문화메세나 '3대 문화동행' 활성화) ▲문화예술 통합홍보 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창작지원 사업은 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실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해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2년 단위 창작 지원사업

을 새롭게 만들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로, 청년, 신진예술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 창·제작 및 전시공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이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광주형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 문화메세나 '3대 문화동행'을 추진해 청년과 신진 작가의 후원 매칭부담을 낮추고, 찾아가는 메세나 'IR' 데이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후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구축중인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은 공연(티케팅 시스템), 전시동향, 문화예술 일자리 정보, 문화예술계 정보교류의 창으로 올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문화예술인 지위보장 및 권리증진을 위해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 운영 강화 ▲문화예술인 특화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는 예술인 복지를 현장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 예술인 원스

톱 지원 및 지위보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창업, 창작, 권익보호 등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등 행정, 법률, 복지, 심리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컨설팅도 지원한다.

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협치행정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을 강화해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매력을 마음껏 발산토록 하는 등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로 커가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오후 서구 농성동 옛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사에 들어서는 '광주AI스타트업 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갑석 국회의원, 서대석 서구청장 등 내빈들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 'AI 창업' 허브도시 도약 앞장

광주전남중기청 'AI스타트업 캠프' 개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 이하 광주전남중기청)은 농성동에 위치한 구청사를 리모델링해 AI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광주 AI 스타트업 캠프' (이하 AI캠프)를 조성해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권철승 중기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송갑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AI캠프 개소를 축하하고 입주기업 및 지원기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구청사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수립, 지역주력산업인 AI산업과 연계 가능한

창업인프라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구청사는 AI 기업을 위한 26개의 입주공간(독립형11개, 개방형15)과 4개의 지원기관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라닝 카페 등을 갖춘 AI 특화 창업공간인 'AI 스타트업캠프'로 재탄생했다.

'AI캠프'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며, 현재는 티스리류㈜, ㈜더심플, ㈜에이아이플랫폼 등 26개의 우수한 AI 기업이 사전심사를 거쳐 입주해 있다.

이와 더불어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호남권엔젤투자허브, 한국인

공지능협회 등 4개의 투자·창업지원기관을 선정, 캠프에 자리잡아 창업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권철승 장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지역내 AI분야 창업투자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AI스타트업 캠프는 창업가들에게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어 스케일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도전과 혁신하는 광주에서 많은 창업가들이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이용섭 시장 "여성 고용안정 적극 지원"

광산새일센터서 현장간담회...기업·구직자 협력방안 모색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일자리 분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고있는 여성일자리 분야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과 구직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산새일센터 관계자, 구인기업 대표,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구직여성들이 참석했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부터 직업교

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취업지원 기관이다. 시는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광주·서구·송원대·북구·광산새일센터)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지난해 6,025명, 올해 7월 기준 4,341명의 구직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연계·지원했다.

이날 구인기업 대표와 구직여성들은 ▲하남산단(공단) 통근버스 확대 운영 ▲새일여성 인턴사업 강화 ▲경력단절 여성과 기업을 연결하는 지원책 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보육시설 운영 등을 건의했다.

시는 향후 하남산단 통근버스 노선 조정·확대, 새일센터 내 놀이방 등 보육시

설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금 상황 등을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새일여성 인턴사업 및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여 취업 후 직장 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고용 여건이 어렵다"면서 "고용 불안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여성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백신 접종완료자

노인생활시설 접촉면회 허용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백신접종 완료자의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생활시설 접촉면회를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 한시 허용한다.

접촉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2차까지 완료해 2주가 지난 경우에만 허용한다.

백신 접종 중 1차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자는 비접촉면회만 가능하다.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길용현 기자

정 사퇴...표심 어디로

▶1면에서 계속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정 후보 지지층이 온전히 우리 지지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양 측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당 전통성의 계보를 잇는 분이다"고 교집합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총리의 사퇴가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위적 단일화보다 중도 사퇴가 이 전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층 결집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여기에 경선 3위를 차지 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도 관심사다. 추 전 장관은 15~16일 광주를 방문해 당원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추 전 장관의 물품이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치열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추 전 장관의 호남 성적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추 전 장관의 성적표에 민주당의 결선 투표가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SK계의 경우 가치 중심의 조직이라기보다 정 전 총리를 중심으로 인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며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캠프로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노,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자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절어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